

삼림자원의 시장화 성쇠, 그 대안

: 봉화군 춘양목을 사례로

손용택(한국학중앙연구원, Sohn@aks.ac.kr)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봉화군의 춘양목은 그 지명도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알려진 유명한 목재 자원이다. 우리 속담에 ‘억지 춘양’이란 말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 춘양목을 목재로 실어 나르기 위해 철도의 방향을 억지로 춘양읍까지 우회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다. 이렇듯 일제에서조차 탐을 냈던 ‘춘양목’의 영향력은 이제 그 명성만 남았을 뿐, 쇠퇴의 길을 걷은지 오래이다.

본 연구에서는 ‘춘양목’의 특징, 삼림입지 조건과 그 경제성,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수요와 공급의 과정에서 살펴보고, 왜, 이토록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삼림자원의 관리가 중요시 되는 요즈음, 국가정책 내지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부흥의 방법을 진단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째, 토종 소나무로서 그 재질이 우수한 재목으로 인정받았던 ‘춘양목’의 분포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였으며, 왜 그러한 분포지역을 나타냈는가를 삼림경제의 입지 측면에서 규명해 본다.

둘째, 춘양목의 과거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장화 과정을 살펴본다. 전성기와 쇠퇴기에 따른 각각의 시장환경 및 국가 또는 지역정책의 변화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왜 그러한 시기적, 지역적 변인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도 분석해 본다.

셋째, 국가정책 내지 지역정책적 차원에서 삼림의 관리, 특히 재질이 좋은 경제림의 가치를 지닌 춘양목에 대한 활용가치의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효과적인 춘양목 재활의 가능성 제고방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현지의 답사를 통해 현황을 조사하고, 둘째, 군청의 삼림과 담당계원(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사정 및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 셋째, 관련 참고문헌 및 기록 등을 동원하여 과거의 춘양목 생산과 수요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넷째, 현재 이곳 국립삼림원을 중심으로 춘양목 재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 방법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탐색해 본다. 다섯째, 삼림경제적 측면에서 수입원목을 대체할만한 ‘춘양목’의 부흥은 과연 수지타산

표 1. 춘양목(적송)과 육송(소나무)의 비교

구분	춘양목	육송(소나무)
수간	· 수간이 규칙 · 대체로 높은 키 · 벌구와 만구 격차 적음	· 수간이 다양 · 키 다양 · 벌구와 만구 격차 많음
수관	· 수관 초두부 모양 불투명(타원형) · 수관 폭(지름) 작음 · 잎의 길이가 짧은 편	· 수관 초두부 뚜렷(원뿔형) · 수관 폭(지름) 상대적으로 큼 · 잎의 길이가 긴 편
수피	· 거북 등 모양 · 시계반대의 나선방향 흐름 · 지표면으로부터 2-3m는 흑갈색	· 수직방향의 골 무늬 · 뚜렷한 방향성 없이 수직상태 · 임목지에 따라 다양(전체가 흑갈색도 있음)
생장과 착생	· 성장 느린 편 · 나이트로 보아 성장속도 균일 · 능선부에서 잘 자람 · 대체로 사질토에서 생림	· 임지조건에 따라 다양 · 대체로 북동향의 임적생장이 빠른편 · 임지여건에 관계없이 넓게 분포 · 사질토 관계없이 넓게 분포
목재	· 심재 적 · 재질이 강하고 가벼움(함수 적음) · 뒤틀림 적고 나이트 좁고 일정함 · 건조시 뒤틀림이 없음 · 부패속도가 더딤	· 심재 회백색 · 재질이 연하고 무거운 편(함수 많음) · 뒤틀림이 많고 나이트 불규칙 · 건조시 뒤틀림이 심함 · 부패속도가 빠름

출처 : 춘양읍 소재 성장기업 부설 임업연구소 이충원씨 면담

이 맞는 일인가를 진지하게 종합검토해본다. 여섯째, 미래를 내다보고, 춘양목 부활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어떤 방향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해 여러 측면의 타당성을 따져 그 대안을 탐색하여 본다. 일곱째, 이들 내용을 종합 정리한다.

3. 춘양목에 대한 실태 분석 - 설문을 중심으로

춘양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에 대해 춘양목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22개 지역 모두에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과거 '춘양목'의 지명도가 대단한 것이었고, 그만큼 훌륭한 재목으로 각광을 받았음을 반증하는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과거에 춘양목 생산에 참여하였거나 혹은 들어서 알고 있는 춘양목 생산지에 대해 체크해 달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43개 지역에 대한 거명 빈도수는 차이가 인정되지만, 전 지역에서 많던 적던 춘양목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답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춘양면 일대를 중심 생산지로 하여 인근의 단양, 영양, 안동, 영월, 영주, 정선 등 인근의 여러 군 지역에서도 춘양목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답변으로서 '춘양목'에 대한 지역민의 사랑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경우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경제성 있는 사업을 병행해 가면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2 춘양목 경기의 쇠퇴원인

춘양목 경기 쇠퇴 원인	응답수(복수응답 포함)
① 외국의 수입원목 등에 밀려 시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2(26.1%)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10(21.7%)
③ 국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나친 남벌을 했기 때문이다.	8(17.4%)
④ 일제강점기 때 남벌해서 씨를 말려 버렸기 때문이다.	7(15.2%)
⑤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7(15.2%)
⑥ 기타	2(4.4%)
계	46(100%)

자료 : 필자의 설문조사 및 결과의 분석에 의한.(2004, 11)

표 3. 춘양목 경기 활성화 방안

춘양목 경기 활성화 방안	응답 수(명/%) (복수응답포함)
① 봉화군청 등 정부 지원하에 관리 전문단지(예: 봉화군 춘양면)를 조성한다.	15(29.3%)
② 춘양목의 수요 보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정책 등으로 뒷받침한다.	13(24.5%)
③ 민간주도하에 춘양을 거점으로 춘양목 조림사업에 지역주민이 앞장선다.	11(20.8%)
④ 춘양목의 가구재로의 용도 개발 등 수요확대를 위한 대대적 홍보사업을 병행한다.	8(15.1%)
⑤ 과거에 '산림녹화' 사업을 벌였듯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여 전국의 야산과 임야에 '춘양목'을 심도록 권장한다.	4(7.6%)
⑥ 기타	2(3.7%)
계	46(100%)

자료 :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에 의한.(2004, 11)

(영주시 영주1동). 한편, 춘양목의 장점으로서 첫째, 무늬결이 매우 아름답다, 둘째, 한국적인 춘양목 특유의 나무향이 훌륭하다, 셋째, 한국의 고건축 재료로서 손색이 없다. 넷째, 한국의 산하를 아름답게 하는 풍광좋은 수종으로서 춘양목을 능가할 것이 없다. 등의 내용을 강조하는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있었다.

4. 종합 및 결론

첫째, '춘양목'에 대한 시장화 과정의 연구는 봉화의 지역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정리해 놓아야 할 부분이다.

둘째, FTA와 관련하여 춘양목을 사례로 한 본 연구는 이 지역 농산물의 연구들과 함께 지방자치체의 지역성을 밝혀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재질의 우수성으로 지명도가 높았던 '춘양목' 성식의 입지여건의 변화를 시대적 변화와 함께 연계하여 고찰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넷째, '춘양목'에 대한 시장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특산물 등의 시장화 연구 사례로

삼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봉화군청 홈페이지 www.bongwha.go.kr
- 문화유적지 및 테마별 관광자원 개발계획(2004)
- 봉화군 중기 발전계획(2002)
- 춘양목 홈페이지 www.cs.invil.org
- 봉화군 삼림경영과 인터뷰(전무종 씨, 011-9578-0856)
- 성장기업(부산)(현재 춘양에 3500ha 춘양목 조림지 소유)과의 인터뷰
- 봉화군 통계연보(2004), 봉화군청
- 봉화군사(2002), 봉화군청
- 우리고장의 전통(1983), 봉화군청
- 辛鍾遠, 1995, 강원도의 禁標·封標, 博物館誌 第2號, 江原大學校博物館